영역

1	①	2	⑤	3	②	4	②	5	②
6	⑤	7	⑤	8	⑤	9	②	10	①
11	④	12	③	13	④	14	③	15	④
16	②	17	②	18	④	19	①	20	③
21	④	22	③	23	⑤	24	②	25	③
26	①	27	⑤	28	④	29	④	30	⑤
31	①	32	②	33	②	34	①	35	②
36	⑤	37	⑤	38	④	39	④	40	③
41	⑤	42	③	43	①	44	②	45	④
46	②	47	②	48	③	49	①	50	④
51	④	52	①	53	④	54	④	55	②
56	④	57	④	58	②	59	②	60	④

듣기대본 및 해설

1. [세부 정보 확인]

[문제 1] 이제 여러분은 '점자'에 관한 강의의 일부분을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점자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승강기, 식음료의 용기, 카드와 명함 등에 점자 표시가 늘고 있고, 관공서의 민원 안내 등에도 점자 제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자의 기본 원리 중, 숫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를 점자로 나타낼 때는 보기의 왼쪽처럼 수표를 사용합니다. 수표가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글자가 아니라 숫자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숫자는 여섯 개의 빈 동그라미에 몇 개씩의 점을 채워서 표시합니다. 자, 그럼, 숫자를 어떻게 표시하는지 그 예를 살펴볼까요?

수표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숫자 1은 여섯 개의 동그라미 중 왼쪽 맨 위 동그라미에 점을 한 개 채웁니다.

그렇다면 숫자 2는 어떻게 표시할까요? 설명에 따라 직접 표시해 봅시다. 숫자 2는 숫자 1에서 칠한 점 바로 아래에 하나의 점을 추가합니다.

3은 어떻게 표시할까요? 숫자 3은 숫자 1에서 칠한 점에다가 오른쪽에 한 개의 점을 추가합니다.

숫자 4는 숫자 3에서 채운 점에다가 오른쪽 중간에 점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숫자 5는 어떻게 표시할까요? 숫자 5는 숫자 1에서 칠한 점에다가 오른쪽 중간에 점을 하나 추가합니다. 즉 왼쪽 맨 위에 하나, 오른쪽 중간에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채웁니다.

숫자 0은 어떻게 될까요? 숫자 0은 6개의 동그라미 중 왼쪽 중간 동그라미에 하나, 오른쪽 맨 위에 하나, 오른쪽 중간에 동그라미 하나, 총 세 개를 채웁니다.

이처럼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면 점자로 된 숫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제의도] 강의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숫자임을 나타내는 수표 다음으로 숫자 2는 6개의 동그라미 중 왼쪽 맨 위와 가운데 모두 2개의 동그라미가 채워진다. 숫자 0은 왼쪽 가운데와 오른쪽 맨 위와 가운데 모두 3개의 동그라미가, 숫자 5는 왼쪽 맨 위와 오른쪽 가운데 모두 2개의 동그라미가 채워진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2. [세부 정보 확인]

[문제 2] 이번에는 방송 강좌의 일부분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남) :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여러분과 함께 하는 '소설 속의 인물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열 번째로 심훈의 '상록수'에 나오는 여주인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작가 심훈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를 해 오신 이영희 교수님의 말씀부터 듣도록 하지요.

교수(여) : 안녕하세요? 이영희입니다.

심훈의 '상록수'는 다들 읽으셨을 겁니다. 알려진 대로 '상록수'의 주인공 '채영신'은 실제 인물 '최용신'을 모델로 한 것이죠.

최용신은 1909년 함경도 덕원의 두남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두남리는 일찍부터 서양문화와 접촉하여 개화된 마을이었지요. 이런 환경에서 최용신은 기독교적인 봉사와 희생정신을 배웠고, 국가와 민족이 살 길은 가난하고 무지한 농촌을 부흥시키는 데 있다는 신념도 갖게 되었습니다.

1930년대는 일제가 대동아공영권을 부르짖으면서 대륙침략을 감행하던 시기였지요. 징병, 징용, 정신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당시 민족운동가들은 절대빈곤에 허덕이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 농촌계몽운동을 펼쳤습니다. 바로 이 때 최용신은 YWCA의 파견교사로 임명되어 경기도 화성의 천곡리 마을에서 농촌계몽운동에 헌신하게 됩니다.

낮에는 직접 논밭에 들어가 마을부녀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고, 밤에는 부녀자들과 아동들에게 한글·산수·재봉·수예 등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마을에 마땅한 교육장이 없는 것을 절감하고 강습소 설립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천곡리에 온 지 1년 3개월 만에 강습소를 신축하여 110명의 아동을 교육할 수 있는 학교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같으면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는 장중첩증(腸重疊症)으로 26살, 꽃다운 나이로 최용신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출제의도] 방송의 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세부 정보를 요약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주인공 채영신의 모델이 된 최용신은 절대빈곤에 허덕이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 농촌 계몽운동에 뛰어들었다. 직접 논밭에 들어가 함께 땀을 흘리고, 부녀자들과 아동들에게 한글·산수·재봉·수예 등을 가르치는 강습소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요양소 운영 활동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3. [핵심 정보의 추리]

[문제 3] 이번에는 날씨에 관한 기상학자의 강의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날씨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개미가 일렬로 이동하면 폭풍이 올 것이고, 사방으로 흩어지면 날씨가 좋을 것이다.'라는 말이 전해오는데, 이 말은 왜 나왔을까요?

개미는 먹이를 찾을 때 자기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페로몬을 방출합니다. 가장 먼저 간 개미가 먹이를 발견하면 다른 개미들은 앞의 개미들이 방출한 페로몬의 냄새를 맡으며 먹이가 있는 곳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페로몬은 휘발성 물질이기 때문에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특히 공기가 건조할 때에는 페로몬의 휘발성이 높아져서, 앞서 간 개미의 경로를 따라가기도 전에 페로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우왕좌왕하게 되지요.

그러나 습도가 높을 때에는 공기 중의 수증기 분자가 페로몬 분자에 흡착되어 페로몬의 휘발을 막아 페로몬이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개미들이 그 냄새를 따라 먹이를 쉽게 찾아갈 수 있지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일렬로 행군할 때는 습도가 높아 페로몬의 휘발이 적은 날이고, 이런 날은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날씨가 흐려지고 비가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미는 5일 앞의 비를 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개미가 5일 앞의 날씨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다기보다는 날씨 변화에 따라 개미가 페로몬에 반응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일기를 예측하게 된 데서 나온 말이지요.

[출제의도] 강연의 내용을 듣고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개미의 행동을 관찰하여 날씨의 변화를 예측하는 옛말에 대해 소개한 내용이다. 개미가 먹이를 찾을 때는 페로몬의 냄새를 따라 직선으로 이동하는데, 건조한 공기에서는 페로몬이 휘발되어 경로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한다는 언급이 있었으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4. [반응의 적절성 확인]

[문제 4] 이번에는 인터넷 언어 사용에 관련된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앵커(남) - 지난 1월, 교육부는 인터넷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는 언어 파괴를 방지하고, 일상에서의 언어 예절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자료집'을 일선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이 책자는 교육부와 국립국어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이 함께 제작한 것으로, 교과 수업과 재량활동 시간 등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자료집에서는 축약형과 줄임말, 소리나는 대로 적거나 된소리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 '요'가 '여'로 바뀌는 것, 은어 등을 언어 파괴 유형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파벳과 일본문자, 특수문자, 한글자모 등 컴퓨터 자판에서 표현 가능한 모든 문자와 숫자를 임의로 섞어서 만들어 내는 이른바 '외계어'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런 외계어는 따로 번역이 필요할 만큼 해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터넷 언어가 다양한 감정과 개성을 표현하고, 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긍정적 기능이 있는 반면에 국어 파괴, 청소년들의 문법 실력 저하, 세대 간의 단절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제의도] 뉴스를 듣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뉴스에서 통신 언어 사용의 부정적인 측

면으로 언급한 '세대 간의 단절'로 볼 때, 통신 언어가 사회 통합의 저해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5, 6. [전제의 확인, 사회자의 역할]

[문제 5~6] 이번에는 '기부 문화'에 관한 좌담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여) : 오늘은 바람직한 기부 문화의 정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김교수님께서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김교수(남) : 흔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는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기부 행위가 알려지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부에 인색한 듯한 느낌을 주는 것뿐입니다.

사회자 : 이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교수(여) : 저도 김교수님 의견과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기부나 자선에 인색한 것은 아닙니다. 텔레비전에서 종종 실시하는 에이알에스(ARS) 모금의 참여율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국민 일인당 연 평균 기부액은 9만8천 원이고, 전 국민의 57%가 기부를 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선진국보다 낮은 수치지만 이 정도면 자선에 호의적인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제도화되지 못한 게 문제라고 봅니다.

사회자 : 우리 사회가 기부에 인색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보다 기업의 기부 문화가 취약하다는 의견이 많은 듯합니다.

김교수 : 지금까지 거액 기부금의 주인공들은 삯바느질 할머니, 행상 아주머니, 국밥 장수 등 어려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언론이 이들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킨 면도 있지만, 어쨌든 드러나는 것으로만 보면 우리 사회의 기부는 상대적으로 돈이 적은 사람이 주로 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교수 : 그동안 기업의 기부 행위는 재단 설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에 대해 편법 상속 및 조세 회피의 수단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가 성숙해지려면 미국의 카네기처럼 역할 모델이 되어줄 만한 기업가의 출현이 필요합니다. 사회 상층부의 나눔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사회자 : 그러면 이제 바람직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수 :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등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김교수 : 기부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기부를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기부금 모금을 위한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합니다.

사회자 : 두 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기부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5. [출제의도] 좌담의 내용을 듣고 참석자의 공통된 견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참석자는 기부 문화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우리나라가 기부 문화 후진국이 아니라는 것, 사회 상층부의 기부 행위가 저조하다는 것,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을 말하고 있다. 상층의 기부 행위가 저조하다는 것은 그런 행위를 활성화하고 유도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6. [출제의도] 좌담의 내용을 잘 듣고 사회자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해설] 좌담에서 사회자는 '일반인의 기부 문화', '기업의 기부 문화', '바람직한 기부 문화 확산' 등의 순서로 참여자의 견해를 이끌어 내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쓰기 ****

7. [연상을 통한 내용 형성]

[출제의도] 사진 자료에 대한 연상을 토대로, 적절한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해설] 고향의 정취와 따뜻함이 묻어나는 사진들이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고향의 정취를 잊고 살아가는 부모 세대에게 고향은 그리움의 대상이지 신비의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8. [글쓰기 계획]

[출제의도] 글을 쓰기 위한 계획 수립과 그 세부 내용이 적절한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해설] 설정된 주제와 관련해 볼 때 전통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기념일을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상업적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다. 문제 해결 방안은 기념일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술에 현혹되지 않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9. [개요 작성 및 수정]

[출제의도] 개요를 작성하고, 조건에 따라 그 개요를 적절하게 수정·보완하는 문제이다.

[해설]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과 같은 분류 기준과 대등한 항목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10. [조건에 맞는 표현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따른 창의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②는 내용의 통일성과 대구의 표현 조건에 어긋난다. ③은 대구를 통한 표현 조건에 어긋난다. ④는 대조의 표현이 사용되었고 내용의 통일성에도 어긋난다. ⑤는 내용의 통일성에 어긋난다. 따라서 정답은 이별의 상황에 맞는 ①번이다.

11. [어법에 맞게 고쳐쓰기]

[출제의도] 어법에 맞게 고쳐쓰기를 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해설] '사상(死傷)'에는 죽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죽거나 사상을 당하면'으로 바뀌면 의미가 중복된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12. [표준발음법]

[출제의도] 표준 발음 규정에 맞게, 바르게 발음된 단어를 찾는 문제이다.

[해설] ①은 [내까]나 [낻까], ②는 [배쏙]이나 [밷쏙], ③은 [윈니] ④는 [나무까지]나 [나묻까지], ⑤는 [나문닙]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13. [어법의 이해]

[출제의도] 용언의 어미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는 경우를 문장으로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문장에서 ④'있겠지'와 ⑤'있을 거야'는 추측의 의미나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14. [어휘의 적절한 쓰임]

[출제의도] 문장 내에서 어휘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①'탓'은 부정적 의미에, '덕분'은 긍정적인 의미에 쓰인다. ②'너비'는 (평면이나 넓게 된 물체의 길이를 전제로 하여) 가로 퍼진 길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즉, 폭(가로 길이)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넓이'는 '넓은 정도, 일정하게 차지하는 평면의 크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즉, 면적을 가리킬 때 쓰인다. ③'갑절'은 어떤 수량의 두 배를, '곱절'은 어떤 수량의 세 배 이상일 경우 쓰인다. ④'경신(更新)'은 이제까지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함을 의미하는데, 법적인 효력 관계에 있을 경우에 쓰일 때에는 '갱신'이다. ⑤'밭뙈기'는 얼마 안 되는 밭을 얕잡아 일컫는 말이고, '밭떼기'는 밭을 단위로 농산물을 일괄 거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현대시 ****

□ 출전 : (가) 김기림, '길'
(나) 윤동주, '사랑스런 추억'
(다) 기형도, '엄마 걱정'

15. [작품의 공통점 파악]

[출제의도] 제시된 작품들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다.

[해설] 세 작품 모두 '그리움'의 정서를 지닌 공간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가)는 '강', (나)는 '정거장 가차운 언덕', (다)는 '윗목'이 화자의 정서와 관련된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16. [내재적 감상 방법]

[출제의도] 내재적 감상 방법에 따라 시를 감상할 수 있는가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이미지, 시적 화자, 시어의 상징적 의미, 감각적 표현 등은 작품의 내재적 감상 요소에 해당한다. 그런데 '시인'은 외재적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17. [시어의 기능]

[출제의도] 시어의 매개적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가)에서 화자는 길을 바라보며, 그 길로 떠나보낸 사람들을 추억하고 있다. 이 '길'은 '강'과 연결된다. 강이 계속 흐르는 것처럼, 시적 화자는 언덕길 위에서 많은 것들을 떠나보낸다. 하지만 화자가 바라보는 그 길과 오래 전부터 지켜보던 버드나무는 여전히 그 곳에 남아 있다. 이러한 것들이 자꾸만 과거를 현재로 불러오고, 추억의 감정을 만들어 낸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시어는 (나)의 '기차'이다. 현재 화자는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기차를 바라보며, 과거의 '기차'를 떠올린다. 현재의 '기차'는 과거의 '기차'와 중첩되며 오늘의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18. [시어의 관계]

[출제의도] 두 시어의 관계를 다른 시에 적용할 수 있는가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일제 강점기의 청년으로서 유학을 떠나는 '나'의 심리는 복잡하다. 이렇게 고통스런 '나'와 아무 부끄러울 것도 없이 하늘을 날아가는 '비둘기'의 모습은 대비를 이루고 있다. ④번의 자유로운 '기러기'와 그것을 부러워하는 '나'의 관계 역시 대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19. [작품의 종합적 감상]

[출제의도] 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성인이 된 '나'에게 과거 어린 시절이 지금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는 것은 성인이 된 '나'

가 그 시절의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난으로 고생했던 어린 시절의 '나'와 시간이 흘러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성인이 된 '나'가 괴리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기술 ****

□ 출전 : 김경렬,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20. [핵심 정보 확인]

[출제의도] 단락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그 관계를 이해하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이 글의 핵심 내용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구 생태계의 이상이다. 이 내용을 전개하기 위해 온난화의 원인, 온난화의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 산업 혁명으로 인한 '온실 기체의 증가'는 온실 효과를 강화시켰고 이로 인해 이상 기후 및 해수면 상승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1년 주기의 거대한 숨쉬기는 탄산가스 농도의 주기별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21. [세부 정보 확인]

[출제의도] 개념 규정의 이유를 문맥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세'라는 개념은 1만 년 이상의 시간대에 적용하는 지질학적 용어이다. 이런 용어를 산업 혁명 이후의 200년 정도의 시간에 적용한다는 것은 그 시간 동안에 벌어진 자연 환경의 변화가 이전 시기 1만 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벌어진 변화와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는 것이다. 즉, 최근 200여 년 동안 인간이 자연 환경을 급격하게 바꾸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22. [세부 정보의 적용]

[출제의도] 글에 드러난 세부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키일링 곡선'은 탄산가스 농도의 관측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지구가 1년 주기의 거대한 숨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매년 꾸준히 탄산가스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래프로 그린다면 여름에는 탄산가스의 농도가 낮고 겨울에는 농도가 높아야 한다. 또한 꾸준한 상승을 보여야 한다. 그래프의 중간에 곡선이 아래로 향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23. [창의적 글쓰기]

[출제의도] 지문의 내용을 새로운 글쓰기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이 글은 지구 온난화 현상의 원인 및 영향, 심각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글쓰기를 하는 것이다. 대책은 원인의 규명을 통해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가능하다. 개인적 차원의 대책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환경 보호 활동이나 에너지 절약이다. 기업의 온실 가스 배출량 감시 및 규제는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복합지문 ****

□ 출전 :

(가) 한시 : 이규보, '영정중월'

(나) 현대시 : 박목월, '나무'

(다) 현대수필 : 김동리, '보름달'

24. [작품의 공통점 파악]

[출제의도] 제시된 작품의 공통점을 적용하는 문제이다.

[해설] (가) '달빛을 탐하는 인간의 모습', (나) '나무를 통해 발견한 존재의 고독', (다) '보름달을 통해 완전한 삶을 추구하는 나'를 추론할 수 있다. ①,③은 (나)에만 해당된다. ④는 '풍류', ⑤는 '현실', '이상' 등으로 인해 (가)~(다)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25. [내용의 창의적 수용]

[출제의도] 시의 내용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다른 장르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해설] 스님이 달빛을 탐하여 병에 담아 왔건만 물을 따르자 허망하게 사라짐을 깨닫는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26. [발상 및 표현]

[출제의도] 표현과 발상의 유사성을 묻는 문제이다.

[해설] (나)에서는 나무를 의인화하여 존재의 본질을 깨닫고 있다. ①에서는 의인화된 솔(소나무)의 곧은 절개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27. [과정의 추론]

[출제의도] 화자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나)의 시적 화자는 나무를 통해 알게 된 고독이 실존하는 자신의 본질임을 인식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28. [표현상의 특징]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방법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해설] '제 자신 한쪽 귀도 떨어지지 않고, 한쪽 모서리도 이울지 않은 꽉 찬 얼굴', '보름달같이 꽉 차고 온전히 둥근 눈동자' 등의 구체적 이미지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29. [문맥적 의미 파악]

[출제의도] 글의 흐름을 바탕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해설] 여건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그대로 자족(自足)한다는 의미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30. [내용의 추론]

[출제의도] 글의 흐름을 파악하여 전개될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해설] 마지막 부분에 '맑고 둥근 눈동자가 눈 가운데 그득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좋다.'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인문 ****

□ 출전 : 박이문, <자연, 인간, 언어>

31. [세부 내용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해설] 마지막 단락에서 동양은 근대 과학 기술 문명 도입과 소화로 물질적 발전을 이루었으나 불편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서양화는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32. [서술 방법 파악하기]

[출제의도] 내용의 서술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해설] 먼저 용어의 개념을 밝혀 논점을 드러내고, 문제점을 지적한 후 그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33. [논지를 알고 적용하기]

[출제의도] 글의 논지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해설] 유교 문화 속에 내재된 인문적 특성을 밝힌 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34. [세부 내용 파악하여 적용하기]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해설] ②,③,④,⑤는 '인'이라는 심성이 자연의 모든 생명체로 확대된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①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생명체를 죽이는 행위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현대소설 ****

□ 출전 : 현진건, <할머니의 죽음>

35. [서술상의 특징 파악]

[출제의도] 작품을 읽고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해 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이 소설은 1인칭 시점으로, '나'의 관점에서 주변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을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36. [등장인물의 입장 추리]

[출제의도] 당면 상황에 대한 인물들의 입장을 추리하는 문제이다.

[해설] 중모는 할머니 곁에서 놀라운 효성을 발휘한다. 그러나 중모의 이런 행동은 단지 친척들에게 '효'를 수단으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려는 과시용일 뿐이다. 생활이 바쁜 다른 자손들은 할머니의 죽음을 기다린다. 할머니의 병환은 자신들의 바쁜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번거로운 일인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37. [적절한 어휘 넣기]

[출제의도] 문맥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넣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 앞뒤 문맥을 보면, 할머니는 자신의 병세가 좋아지길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흔자라도 일어난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부분과 '정말 낫겠다고 하든?' 하며 웃음의 그림자가 오래간만에 그의 볼을 스쳤다는 부분이 나온다. 따라서 '구슬프다'는 의미의 '처연(悽然)'은 적절하지 않고, '기쁜' 또는 '흔연한' 정도의 수식어가 적절하다. ⓑ는 '번갈아 돌아가며'의 뜻이고, ⓒ는 '강제로 이끌려', ⓓ는 '정신이 흐리고 가물가물한 모양'을 뜻하므로 적절한 어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38. [상황에 맞는 인물 태도 파악]

[출제의도] 인물이 처한 상황에 맞는 태도를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가족들은 이미 여러 번 헛걸음을 했기 때문에 내심 할머니의 쾌차가 아니라 할머니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다. 이는 '모두 같은 일을 기대하면서'라는 부분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는 별다른 증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중모는 호들갑스럽게 염불을 외우고 있다. 그러므로 못마땅한 어조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태도가 가장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39. [배경의 기능 파악]

[출제의도] 주어진 배경이 작품 내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어느 화창한 봄날, 주인공은 할머니의 죽음이라는 전보를 받는다. 작품의 계절적 배경인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로, 주인공이 처한 상황과 대비되어 비극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언어 ****

□ 출전 :

(가) 이규태, <헛기침으로 백마디 말을 한다>

(나) 천소영, <우리말의 속살>

40. [세부 내용 파악하기]

[출제의도] 두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여 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두 글 모두 한국어의 특수성을 중심 화제로 다루고 있다. ①,②,④,⑤는 앞뒤의 내용이 바뀌어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41.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출제의도] 글의 문맥적 의미를 주어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나'는 점순이의 통찰의 의사 소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숙한 인물이다. 그래서 점순이가 내미는 감자를, 고개도 돌리지 않고 쑥 밀어버린다. 이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42. [비판적 의문 제기]

[출제의도] 글을 읽고, 비판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가)는 완곡어법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나)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의 필자는 한국어의 완곡한 표현이 불투명한 표현을 낳을 수 있다는 (나)의 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의사 소통 상황에서 항상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기 때문이다. ①의 경우, (가), (나) 글쓴이 모두 본의(本意)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 전달 방식의 차이를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43. [한자 성어로 표현하기]

[출제의도] 언어적 상황에 적절한 한자 성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통찰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맘이 통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한자 성어는 '이심전심', '염화미소', '염화시중' 등이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고전소설 ****

□ 출전 : 조위한, <최척전>

44. [작품의 종합적 감상]

[출제의도] 소설의 구성 요소와 관련하여 작품을 이해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해설] 옥영은 결혼 대상의 선택 기준을 사람됨이나 가능성에 두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최척의 아버지와 옥영의 모친은 부나 지위·안정성 등에 가치를 두는 보수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45. [인물의 태도 파악]

[출제의도] 두 인물의 공통적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최척의 아버지와 옥영의 모친은 처음에 자식의 의견에 반대하지만 자식의 뜻을 받아들여 결혼을 허락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46. [인물의 성격 파악]

[출제의도] 다른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을 추리하도록 하여 등장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해설] 옥영은 어머니를 설득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것을 권할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47.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출제의도] 등장 인물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해설] 성실하지만 가난한 선비 최척을 마음에 두고 있던 옥영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는 어머니를 적절한 이유를 들어 설득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예술 ****

□ 출전 : <만화에서의 칸 - 시간과 공간의 상상력>

48. [핵심 내용 파악]

[출제의도]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만화 예술 창조 과정의 일부로서 칸의 의미 및 기능에 대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49. [자료 활용 및 해석]

[출제의도] 글의 논지에 맞게 자료를 해석·적용하는 문제이다.

[해설] 칸으로 나누어진 만화 자료를 이용하여 칸을 통해 나타나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 움직임의 형상화, 연속 배열을 통한 의미 형성 등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인물들의 싸움 장면이 칸에 그려져 있지만, 그를 통해 상징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50. [논리적 전제의 파악]

[출제의도] 의견 및 주장의 논리적 전제를 찾는 문제이다.

[해설] 칸이 지닌 역동성과 나누어진 칸을 뛰어넘는 생동감 있는 의미 전개를 말하고 있다. 칸이 이러한 특성과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칸과 칸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독자의 의식 작용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완결성 연상인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51. [단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

[출제의도] 본문에 사용된 단어들의 문맥적 의미를 글의 논리적 흐름에 맞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간과하다'는 '예사로 보아 넘기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로, 이 글에서는 '중요성을 놓치고 넘어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과학 ****

□ 출전 : <MP3 압축의 원리>

52. [핵심 정보의 파악]

[출제의도] 본문에 제시된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이 글은 파괴적 압축 방식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나 개념을 정의하지는 않았다. 비파괴적 압축 방법과의 비교를 통한 차이점을 부각하여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53. [세부 정보 확인]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세부적인 정보에 대해 판단하는 문제이다.

[해설] 연속되는 데이터의 양이 많으면 비파괴적 압축 방식이 유리한 것이지 비파괴적 압축 방식자체에 연속되는 데이터의 양이 적고 많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54.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출제의도] 언급된 정보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해설] 데이터 압축 방식을 원리적으로 이해했는지를 묻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55. [문맥적 의미 파악]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와 통하는 구절이나 단어를 찾는 문제이다.

[해설] ㉡은 Mp3의 압축 원리에 의해 제거되는 소리에 대한 설명이다. 압축 원리에 의해 제거되는 것은 인간의 인지능력 밖의 소리이다. 전동차가 들어올 경우의 친구의 목소리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사회 ****

출전 : 황희영, <전통적 경제학의 장르가 붕괴한다>

56. [세부 내용의 파악]

[출제의도] 글의 화제 및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이해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다)에는 디지털 정보 처리의 특성으로 인해, 표준을 장악하면 기술적으로 열위에 있는 기업도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57. [유사한 내용의 적용]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를 파악하고 해당 자료가 주어진 글의 어느 부분과 관련되는지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는 인터넷의 특성상 사용자의 관심을 끌어당겨야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즉, 아무리 훌륭한 정보가 있다하더라도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컨텐츠의 매력이 없다면 그 가치를 발현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58. [구체적 사례의 적용]

[출제의도]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한다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상품 정보로의 접근이 용이해졌다는 것이다. 생산자가 제공한 정보뿐만 아니라, 소비자 간의 정보 교환 등이 활발해진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인터넷 구매는 정보의 비대칭성과는 관련이 없는, 상품의 판매·구매 단계이다. 정보의 비대칭성 극복은 구매 전 정보 수집 단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59. [과제 설정의 적절성 평가]

[출제의도] 내용을 심화학습하기 위한 수행과제 설정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해설] 이 글은 전자상거래의 등장으로 인해 경제 환경이 변화함으로써 생산자·소비자·거래의 특성 등이 변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의 특성에 대한 과제 학습은 전자상거래의 이해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60. [개념의 추리]

[출제의도] 본문에 제시된 개념의 의미를 적절하게 추리하는 문제이다.

[해설] 이 글의 문맥과 <보기>를 참조할 때 '망외부성'은 '타인의 참여에 의해 효용이 증가하는 것'이며, 가입자 쏠림 현상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망외부성'은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그 가치가 증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